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법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 탐방

학사 일정

7월

- 8(수)~10(금) 원제본 논문 접수(예정)

8월

- 3(월)~25(화)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 15(토) 광복절(공휴일)
- 20(목)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식(예정)
- 21(금)~26(수)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 21(금)~28(금) 2020학년도 2학기 등록
- 25(화)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0년 7월 5일(일)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68호(월간)

■ 초점

2020학년도 1학기 '초점' 지면은 '미래교육과 교사'라는 주제로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에서 특강을 진행한 전문가 5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연속해서 게재합니다.

중학교 교사를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에게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여자중학교 상담실장 한만수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했고, 현재 재직 중인 정신여자중학교에서 23년간 역사를 가르치다가 2013년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했습니다.

■ 전문상담교사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2015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36.6%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라고 답해 스웨덴, 일본과 함께 만족도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교직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기 직업군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013년에 시행된 '교사 마음건강 실태 조사'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한 원인으로 '학생 지도의 애로'가 가장 컸습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중학생 지도를 적절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학생들의 현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뇌과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감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편도체가 완성되어 감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에스트로겐의 증가로 여학생들은 더욱 예민해지며, 급격히 늘어난 테스토스테론으로 남학생은 공격성과 성욕, 영토의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쾌감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과분비 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큰 사건을 쉽게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서를 안정시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성인의 약 60%밖에 나오지 않아 10대들은 불안 정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성적 통제나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전두엽이 사춘기 때 재편되기 시작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신형 고성능 자동차 엔진에 자전거 브레이크를 단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그에 따른 정서와 관련된 호르몬의 큰 변화를, 인지 통제 능력이 그만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조화를 겪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중학생들이 키는 성장하지만 관절 연골 성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잘 넘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만수

정신여자중학교 상담실장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맥린병원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여주고 어떤 표정인지 질문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성인들은 모두 맞혔으나 청소년의 50% 정도가 오답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행복한 표정'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반응한 뇌의 영역을 살펴보니 성인은 이성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전두엽 부분에서, 10대들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뇌의 영역부터 교사와 다른 반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절반 정도가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춘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이성적인 부모와 감정적인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과 심각한 갈등을 심심치 않게 만나는 데 이는 교사와 학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이나 관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환경적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은 부모와 초기 애착 관계를 비롯하여 평생의 성격 기저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차 핵가족화되고, 3쌍 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가정 붕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긴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분노가 선생님에게 투사되어 공격하는 일도 있고,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등교한 아이가 여자 담임선생님에게 과도하게 반항하는 일이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이때 교사들의 여유와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아버지를 '그 인간'

으로 칭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학 이후 활짝 핀 얼굴로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저 아빠와 화해했어요!"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상담 당시 듣지 못했던 '아빠'라는 단어가 반가워 흐뭇했습니다.

■ 최근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과는 달리 '가면 우울증(Masked Depression)'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면 우울증 학생은 오히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행동, 심지어 비행까지 행하기도 한다. 청소년 비행의 적어도 1/4 이상이 (어떤 학자에 따르면, 심지어 절반 이상) 우울에서 비롯됩니다. 예방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우울이 심각해질 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멍 때리기'입니다. 우울이 심해지면 최고 난이도의 영역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학생들에게는 그 부분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학생에 대한 이해 없이 지적하고 야단치면 오히려 학생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 지도 시 행동 자체보다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때 최소한의 권위가 필요하므로 공감을 핑계로 학생과 인격적으로 대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고려대학교의 예비 교사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의 학생들처럼 조숙한 성장을 경험하지 않았고, 뇌의 가소성(변화 가능성)이 활발한 나이에 고도의 IT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던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인성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을 이해해야 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부단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교육대학원 선배 교사로서, 예비 교사들이 나를 알고 학생을 아는, 준비된 선생님들이 되기를 기원하며 건투를 빕니다.

김재민 기자 kthinkerbella@korea.ac.kr

19052020
KOREA UNIVERSITY 115th ANNIVERSARY

201



년에 출범한
KU PRIDE CLUB이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천5백여 명의 후원자가 모아주신 정성은
15만 명의 학생들에게
전해했습니다.

KU PRIDE CLUB이
래 오래~
고려대의 기부 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KU PRIDE CLUB, 5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누적 회원 5,517명 17,102구좌
(2020. 05. 29 기준)



누적 지원 내역



마음드든 아침

*2018.11.1~12.31(시범운영),
2019.2.1~12.31

125,456명
3.1억



글로벌 희망 장학생

*지원학기 2016~2, 2017~2, 2018~1,
2018~2, 2019~1, 2019~2

175명
13.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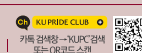
생활비 장학생

*지원학기 2017~2~2020~1
(매학기 선별 지원)

2,800명
33억

KU PRIDE CLUB 후원문의

홈페이지: give.korea.ac.kr | 이메일: kupride@korea.ac.kr | 전화: 02-3290-1243 |



고려대학교 기부금 후원 계좌
하나은행 33-1905-1905-1905 (예금주: 고려대학교)

* 이 광고는 고려대 학생 기부 홍보대사 콤피(KUP'C)의 아이디어로 제작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2차 종합시험 시행



지난 6월 5일(금) 오후 6시부터 우당교양관 301호 등 22개 교사장에서 '2020학년도 1학기 2차 종합시험'이 시행되었다. 이번 종합시험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 시험 기신청자 중 4학기 이하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추가 시행되었다. 시험은 총 세 과목으로 1교시에는 교직 또는 외국어, 2교시에는 전공 시험이 치러졌다.

4학기 이하 기신청자는 총 297명

이었으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지침을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 후 시험 응시, 종합시험 시행일 이전 문진표 작성 후 시험 당일 제출, 발열 여부 확인 후 교사장 입장'의 절차를 따랐다.

또한, 본교는 각 교사장마다 응시

자의 양해를 두 좌석씩 비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교직 과목, 전공 과목, 외국어 과목)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며 2014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공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있다.

교직 및 전공 과목의 경우 2학기 이상 이수한 자(2학기 학적 및 성적 이 완료된 학기 기준)이면서 12학점 이상, 평균 성적 B 이상 이수자(야간·계절 공동)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어 과목은 영어, 한문, 일본어 중 1과목을 선택하며 응시한다. 응시 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1학기 학적 및 성적 이 완료된 학기 기준, 야간·계절 공동)이다.

한편, 합격자 명단은 7월 10일(금) 오후 5시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latinkerbella@korea.ac.kr

제20기 교육경영 AMP 합숙세미나



6월 14일(일), 15일(월) 양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제20기 교육경영 AMP 합숙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합숙세미나는 제20기 교육경영 AMP 원우 39명과 양채진 담임 및 여러 학교 관계

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원우들은 집결하는 순간부터 해산할 때까지 여러 차례 발열 여부 확인은 물론 버스, 강의장 등 어디에서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을 기울였다.

14일(일) 합숙세미나 1부에서는 김준애 한국서비스교육원장이 '리더의 격을 높이는 감성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어진 2부와 3부에서는 만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5일(월)에는 설악산 트래킹을 하며 대자연 속에서 원우 간의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제20기 교육경영 AMP 원우들은 각 사회 분야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폭넓은 전문 지식을 쌓고 원우 간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다짐하며 합숙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제4차 실습



지난 6월 13일(토)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초우선교육관 203호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학기 제4차 실습이 시행되었다.

이번 실습은 5월 25일(월)부터 5월 28일(목)까지 포털을 통해 사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지 못하고 있던 2020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었으며 총 69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실습 전 발열 여부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실습 중에는 마스크를 필

수 착용하도록 하였다. 실습은 출결 확인에 이어 10시부터 이론 교육 1시간, 11시부터는 실습 교육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실습생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절차와 방법, 자동 심장 충격기(AED) 사용법과 기도 폐쇄 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익혔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한다.

향후 2020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일정 및 세부사항은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에 공지될 예정이므로, 실습 대상자는 해당 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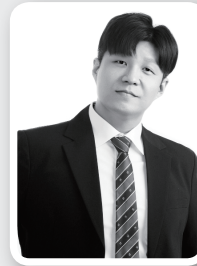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교육신문사에서는 교육대학원·사범대 재학생 및 교우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 원고 모집 지역은 '교육과 이슈', '교육현장노트'입니다. 글을 보내주신 학우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분 량 : A4용지 1매
· 보 낼 곳 : edunews@korea.ac.kr
· 문의사항 : 교육신문사
02-3290-1690

제57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선출



최영묵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지난 6월 8일(월) 제57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전자투표로 실시되었다. 전자 투표는 유권자의 핸드폰으로 투표 인증번호를 전송한 뒤, 각 유권자가 전송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단독 후보로 상담심리교육전공 최영묵 원우가 출마하였으며, 총 투표

용지 수 241표 중 찬성 214표, 반대 27표로 당선이 결정되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57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향후 1년간 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원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게 된다.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최영묵 원우는 "제57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출마부터 당선까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고 귀중한 표를 행사해주신 모든 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제57대 총학생회가 꾸려갈 1년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위해 1년을 땀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신 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공감, 믿음, 소통으로 함께 걸어가는 학생회로 다가가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지난 6월 12일(금) 오후 2시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응시자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였다. 합격자 조회 및 합격 통지서 출력은 오는 7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020학년도 후기 합격자 등록 기간은 7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8일(수) 오후 4시까지이다.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본인 통지 없이 합격이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입생 학번은 7월 초부터 수강 신청 전용 URL(<http://sugang.korea.ac.kr/graduate>)의 '신입생학번조회'에서 수험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수강 신청 기간은 8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26일(수) 오후 5시까

지이며, 수강 정정 기간은 9월 2일(수) 오전 10시부터 7일(월) 오후 5시까지이다.

2020학년도 후기 개강일은 9월 1일(화)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입학 지원 당시 학부 졸업 예정자였던 경우에는 9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각 1부씩 교육대학원 행정실(운초우선교육관 405호)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번 조회 기간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각종 학사 안내와 공고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므로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김재민 기자 latinkerbella@korea.ac.kr

개교기념일 무궁화 식수 행사



지난 5월 5일(화)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운초우선교육관 앞에서 무궁화 식수 행사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원 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교원양성기관에 국화인 무궁화를 심음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게 될 학우 및 원우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한편, 교사를 꿈꾸는 학우 및 원우들이 자신의 꿈을 무궁화게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사범대

학 문택수 부장 외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총 세 그루의 무궁화를 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문택수 부장이 기증한 세 그루의 무궁화는 각각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원 과정을 상징한다.

최근 고려대학교는 전국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가운데 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교육과 이슈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



진미령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계
위기개입상담관

‘가슴이 답답해요’, ‘물건 던져버리고, 건물 다 무너져서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지구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 피해자들이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떻게 말할까요?

청소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잘 알리지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인들조차 경황이 없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초기 대응에 서투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범죄 피해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주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가 누적될수록 피해 강도와 트라우마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청소년 피해자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과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 찬찬히 들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위원회 및 징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라도 가족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꺼냈다가 ‘우리

집만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이질감,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것 등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피해에 노출된 경우에는 부모에게 들은 비난을 그대로 내면화해 폭력을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거나, 성인기 대인관계 및 성격 발달에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 역시 민감한 피해 내용에 대한 수치심과 자책으로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길 꺼립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릴 수 없는’, ‘망가진’, ‘바보 같다’와 같은 낙인을 찍고, 친구, 학교 등의 시선을 염려하며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택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들어간 랜덤 채팅 또는 SNS로 낯선 사람을 만나 정서적, 성적 착취, 협박을 당하는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에서의 이탈이 실제 생활까지 이어지고, 폭력이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연령 제한이 없고 접근이 용이하며, 즉각적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데 일조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범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루밍이 일어나며, 청소년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스스로 친구나 대가를 원했다는 자발성이나 음주, 비행 행동 등과 상관없이 폭력은 신고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범죄 피해 트라우마는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수반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과민함, 우울, 분노, 무기력, 공허함, 자책을 느끼며, 현 상황을 부인하거나 과각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중력 저하,

혼란, 건망증, 위축,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지·행동적 증상과 빠른 심장 박동, 호흡곤란, 현기증, 소화 장애 등의 신체 증상도 흔한 반응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이 생기거나, 수면 시간의 증가,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는 등 회피적 대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 기능 및 집중력 저하는 청소년의 주요 과업인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 피해 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들이, 부모나 교사에게는 피병으로 여겨져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에 관계 갈등까지 더해질 때, 청소년들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주변인에게 서운함과 자책감을 느끼며 양가감정으로 더욱 힘들게 됩니다.

성인 피해자와 청소년 피해자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및 상담 진행 시 부모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피해자의 피해자 진술과 상담은 부모님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점 역시 보호자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성인들조차도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법적인 내용을 청소년이 혼자서 숙지하고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지자원인 보호자의 존재 유무, 피해에 대한 반응에 따라 청소년 피해자의 트라우마 강도 및 회복 기간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마음 상태와 욕구에 대해 충분히 살필

심리적 여유가 있다면 회복 탄력성과 예후가 좋습니다. 반면, 부모 자신의 어려움이 큰 나머지 자녀에게 충분히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을 경우, 자녀는 소외감, 외로움, 무력감, 절망감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주변의 지지체계와 자원에 따라 트라우마의 정도와 예후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지체계가 부족했던 피해 청소년을 학교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피해 당사자 청소년에게도 큰 힘이 되고, 교사에게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외에도, 아직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한 피해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교사들은 어떻게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잘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또는 이미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청소년 피해자들은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어렵게 이야기했을 때 자신을 탓하지 않고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공감적으로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 너무 놀라는 반응은 자제하고 청소년 피해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는 인내심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사기관 및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유기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교사의 관심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발달적으로 중요한 청소년기의 피해자들이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 추진

교육부는 학교 화재가 매년 190여 건 외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기에, 그동안 학교 화재 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맞춤형 화재 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 안전 시설 기준’과 ‘유지관리 지침’ 마련 후 고시(‘2020.12’)할 예정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 학교(188개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

둘째,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버트와 샌드위치 패널도 조기에 교체하고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도 비치해 나갈 예정이다. 드라이버트 교체는 5년을 단축(2030년→2025년)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6년을 단축(2031년→2025년)하여 교체한다. 그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파난 시설, 방화 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 흡입 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 마스크, 안전 비닐 등을 비치한다.

셋째, 학교 화재 예방 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 공사의 화재 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발 발생 시 학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여 관리하여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아울러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 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 안전 문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기숙사 야간 대피 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화재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 예방을 내실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근무 환경 실태 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교원지위법은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③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한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 조사 대상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 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2일(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체계 정립,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된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또한, 경우포함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 정부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비로소 법률을 제정(시행: 공포 1년 후)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학, 교육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2020년 12월 4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6.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학교 건물을 건축물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 교사 등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종합적실효성 있는 교육시설 관리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더 나아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안수진 기자 dkstrnws61@korea.ac.kr

교육과 학문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을 연계한 교육과정 기준 개발의 필요성과 실현 과제



성승희

고려대학교 강사, 경북초등학교 교사

투명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한 점이다. 이로써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회계 관리 시스템이 하나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 기준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체계적 계획이자 안내이다. 그러므로 본 기준은 결정적 학습기를 거치는 학습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양질의 연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기관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 사이에 '연계 기준'을 세워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누가, 왜, 어떤 원리를 토대로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다. 연계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있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10차례 개정이 진행된 초등 교육과정과 달리, 누리과정은 2013년에 들어서야 '3-5세 연령별 누리 교육과정'으로 통합되어 개발·운영이 본격화되었다.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서 두 교육 단위 간에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문서 체제와 내용 체계가 통일된 틀과 용어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은 위계를 판단할 감식안도 가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누리 교육과정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연계 근거는 학습자, 사회적·학문적 측면에서 탐구할 수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 인지·심리사회·신체적으로 유사한 발달 단계를 보이는 아동의 학습 및 심리사회적 지원과 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적절하

고 타당하게 설계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누리-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연계성 있는 구성은 기본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차원의 사회적 육아 필요성 증가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공교육의 확대 개편 필요는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에 해당한다. 이를 보장함으로써 어린 시기에 발달 지연이 누적되어 나타나게 될 추가적인 경제·정서적 지원을 예방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사회적 운명에 효율성을 높인다.

학문적으로 연계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교육과정 조직에서 중복, 편중, 비약, 낙차, 누락, 혼란 등과 같은 현상을 없애서 교육과정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달성하고 교육활동의 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종합해보면 연계성을 검토하는 준거들은 균형성, 통일성, 계열성, 계속성, 횡적 영역, 횡적 통합, 전체적 연계성으로 요약되는데 이를 통해 연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렇다면 연계 교육과정 개발의 방안 및 구체적인 개발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는 가안, 초안, 수정안, 최종안의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가교 총론으로서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을 연계한 교육과정 기준 문서안(案)을 전체적인 열개 형태의 가안으로 작성하고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기준 초안을 개발한 후, 초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조사를 거쳐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여 수정안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연구자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설계한 누리-초등 저학년 연계 교육과정 기준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개발 영역인 주제, 대상, 절차에 각각 요소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인데, 그중 주제의 요소는 분야별 대표성, 참여집단 비율의 적정성, 역할의 명확성으로 세분화한다. 분야별 대표성에서 기준지표는 연계 교육과정 개발자 및 외부 자문단이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인가, 자격별 구성 비율은 적절한가, 주제간의 역할 구분이 명료하고 개발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가이다.

대상은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각각의 연계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기준의 연계성이다.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기준 각각의 목표, 내용, 편성 및 운영, 방법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가, 연계해서 개발된 교육과정 기준은 적절한가 등이 기준지표로 설계된다.

끝으로 절차상 의사결정의 민주성, 의사소통의 공정성, 연계 원리 이행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 개발 시, 자유로운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졌는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의견이 수렴되었는가, 개정 과정에서 연계의 원리(계속성, 계열성, 횡적 영역, 횡적 통합성, 균형성, 통일성 등)는 잘 지켜졌는가 등이 기준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질적인 기준 개발을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원론적인 연구에 앞서 실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안의 개발이 시급하다. 아직 행정·법률적으로 분리된 누리, 초등 교육과정 개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점

진적 적용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에 도입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여 재구성한 모델링을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한, 교육목표 제시 및 편제 등에 누리과정을 포함하고 편성·운영 기본사항에 누리과정과의 협력적 연구 및 다음 학교급과의 연계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시하는 것 등은 변화 요소들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항에 누리-초등 간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준거를 안내하는 것은 단위학교 수준에서 연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연계 교육과정을 이루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단, 실제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을 연계한 교육과정 기준 개발이 진행될 때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현장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한 고려가 필수적일 것이다. 추가 연구로는 현장에 실제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종적 차원에서 누리-초등 저학년 이후 중·고교까지 연계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초·중·고 15년과 대학까지 일관된 교육과정 로드맵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는 점, 총론 수준에서 나아가 각론 및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의 연계 방안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현장에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기준, 교원 양성과 운용, 학생 수용으로서 학제와 같은 기본 교육제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보다 실질적인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 연계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연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행정·법률적으로 양분된 현행 체제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a@korea.ac.kr



교육신문 문화평

시베리아의 딸, 김 알렉산드라(2020)
김금숙 만화, 정철호 원작, 서해문집

러시아 하바롭스크 무라비예프 아무르스카야 22번지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동판이 붙어 있다. “1917~1918년 이 건물에서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이 집무를 보았다. 볼셰비키 시위위원회 정치부 위원이자 하바롭스크시 소비에트 외부위원이었던 그녀는 1918년, 영웅적으로 죽었다.” ‘시베리아의 딸, 김 알렉산드라’는 ‘영웅적으로 죽은’ 한 여성을 다룬,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작가 김금숙의 신작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주 4·3 사건 등 역

“내 눈을 천으로 가리지 마라. 나는 죽음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다.”

사적 사건에서 소재를 취한 ‘풀’, ‘지슬’ 등 저자의 전작은 영국 《가디언》 ‘2019 최고의 그래픽 노블’, 미국 《뉴욕타임즈》 ‘2019 최고의 만화’ 등에 선정되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엔 작가가 주목하는 역사는 한인 최초의 볼셰비키로서 조선의 독립과, 노동자·여성의 해방을 꿈꾸었던 혁명이 김 알렉산드라의 삶이다.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타케비치. 주위에서는 줄여서 ‘쭈라’라고 불렀던 김 알렉산드라는 1885년, 시베리아의 한인 마을 시넬니코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김 포트르(김두서)는 함경도 경원 출신으로 일찍이 러시아로 건너가 철도 건설 현장에서 통역관으로 일했다.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던 김 포트르는 딸에게 “항상 노동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포트르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뒤, 김 알렉산드라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여성사범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곧 혁명에 감화된 그녀는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척박한, 우랄 지역 페름의 벌목장에 통역으로 자원한다. 이 곳에서 그녀는 두개골이 깨지는 부상을 입고도 나무를 날라야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다. 조선인, 중국인, 러시아인, 그리고 오스트리아 포로병들이 주축이 된 파업을 조직하기도

했던 그녀는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암살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탈출한 그녀는 1916년, 러시아 사회민주당으로부터 ‘국동인민위원회’ 조직의 임무를 부여 받고 하바롭스크로 파견된다.

당시 연해주 지역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격동의 중심지였다. 10월혁명 이후 반혁명군인 백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최전선이었고, 참전국으로서 백군을 도울 구실을 찾던 일제의 군대가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런 요지에 시당 비서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파견된 김 알렉산드라는 짧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 2년여 간,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케렌스키 임시정부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이동휘(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석방한 뒤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해 ‘한인사회당’ 창설의 중추 역할을 했고, 조선인을 포함한 적군을 구성해 전투를 준비했다. 그러나 곧 밀어닥친 백군의 병력 앞에 철수를 진두에서 지휘하다 나포되었다.

마지막 군사재판에서 판사는 그녀가 (러시아 국사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조선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죄를 뉘우친다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권리’와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에 그녀는 자신이 “조선 출신으로서” 동원된 것이 아니며, “소비에트 권력을 방어하

는 것이 조선 민족을 해방에 이르게 해줄 것임을 알기에 열성적으로 참전했다.”고 답하며 참전한 조선인들의 주체성을 변호한다. 이어 자신이 치른 싸움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일은 후대에도 “수만 명의 여성들 가운데서 전개되어 나갈 것”이라 주장하며 “전 세계 여성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한다. 김 알렉산드라에 대한 회고와 구술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조선의 13도를 상징하는 열세 걸음을 걸은 뒤 사살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서훈되기도 했지만, 김 알렉산드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적다. 간혹 이름이 다루어질 때조차, 흔히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로 운위되고는 한다. 그러나 단순히 ‘조선’뿐 아니라, 제국주의 타파를 통한 모든 인간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여성 해방을 꿈꾸었던 선구적 여성운동가라는 점에서 그녀를 가리키는 더 적절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혁명가’일 것이다. ‘식민지기 러시아에서 활동한 여성’이 아닌,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여성과 노동자의 해방을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김 알렉산드라의 각별함을 찾고자 하는 이라면,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스승

장애이해 교육으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송이호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하신 새얼학교 송이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한편,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신 송이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송이호
새얼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새얼학교에서 21년째 근무 중인 교사 송이호라고 합니다. 지면을 통해 서나마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전공과에서 직업생활이라는 과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취업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자기소개하기 등을 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법, 갈등 해소법, 인사법 등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다리가 불편한 저에게 어머니의 등은 저의 다리였습니다. 저의 다리가 되어 주시던 어머니는 등하굣길에 항상 이런 말을 혼잣말처럼 되뇌고는 하셨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 좋겠는디...”라고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러한 혼잣말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또한 '효(孝)'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고등학교 시절 저의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고(故) 김현승 시인의 동생이신 김현구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관사 생활을 하게 된 일화가 그것입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로해 주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교장 선생님과의 생활은 저에게 교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교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처럼 중증의 장애인들은 교사로 임용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특수교사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께서는 글쓰기를 좋아했던 저에게 국문학과로 진학할 것을 추천하셨지만 저는 교사, 그 중에서도 특수교사가

되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 고향은 완도의 부속 섬 금당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광주로 와서 생활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때 생각한 것이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이 중요하겠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끝에 얻은 답은 역시나 특수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것으로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저는 이 길만을 고집했습니다.

선생님은 장애 학생들의 특기 개발과 예술 활동을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특기 개발 및 예술 활동을 이끌어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생들의 특기 개발과 예술 활동을 강조하게 된 것은 바로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낯선 환경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날의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기 개발 및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훈 또한 '두려워말자, 다 같은 인간이다'로 정했습니다.

한편, 보통의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수혜의 대상이자 도움 받는 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각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우리 학생들이 자활하는 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연구하던 중 교사 중심으로 이끌던 새얼극회 '끼'를 학생들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과감히 도전하였습니다.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주 2시간씩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은 학생들에게 자신감뿐만 아니라 발음 교정, 협동심, 자신감 등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본 쓰기부터 배경 그리기, 무대 설치와 조명 조작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참여하고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뜻함과 성취감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자신감 갖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선생님께서 교육봉사활동 동아리 '굿모닝 사랑팀'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굿모닝 사랑팀'은 2006년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는 소외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체험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해 보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편식(계란 프라이, 라면 끓이기, 김밥 만들기 등) 요리하기, 재래시장이나 대중음식점 이용, 도예체험, 경기 관람, 전시회 등을 경험해 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1박 2일 캠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물론 부모님들 또한 좋아하셔서 보람을 느낍니다. 즐겁게 지내다 행복한 얼굴로 집으로 향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곡기(穀氣)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배가 부릅니다. 이 일은 저희 부부가 함께 하는데 하늘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인권 강사, 장애이해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꼭 하고 싶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거론될 필요가 없고, '장애'라는 단어가 오르내리지 않는 사회가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향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초등학교부터 기업체까지 두루 다니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이해 교육에서는 3cm의 물리적 높이가

장애인들에게는 30cm, 3m의 심리적, 사회적 높이가 될 수 있다는 경험담을 전함으로써 비장애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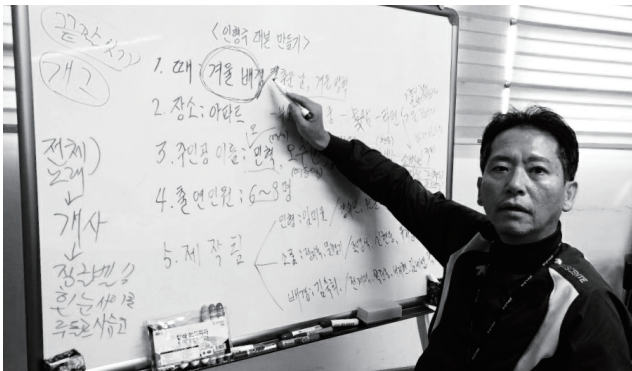
선생님의 교육관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배드민턴, 배구, 야구, 탁구), 각종 공모전, 사회단체 활동, 취미생활(낚시, 당구) 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는 저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노력은 자신이 바라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귀감이라고 칭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조금은 느리고,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하며 '기다림', '인내'라는 가치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기 연찬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등대요,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미래라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밝혀 주고 방향을 잡아 주는 등대이자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도전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무엇이든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말입니다. 도전 속에서 지혜도 지식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교육과 세계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I 역사에 대한 대중적 열정

한국은 역사관, 역사교과서는 물론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사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 나라이다. 이는 역사를 국민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이다. 실로 프랑스는 13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800여 년 동안 서양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소련)가 양대 세력으로 우뚝 서 있던 20세기 냉전 시기에도 이들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세력이었다. 중세 기독교적인 왕의 전범인 루이 9세, 종교전쟁의 참화

를 관용적 정책으로 극복해낸 앙리 4세, 17세기에 프랑스의 영광을 구현한 루이 14세,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19세기 문화의 중심지 파리는 프랑스인들이 즐겨 찾는 역사 키워드를 이룬다. 역사 관련 이슈를 생산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수많은 대중 역사 전문 월간지의 발간, 그리고 최근 프랑스사와 세계사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발행했던 역사 교과 논쟁은 역사에 대한 대중적인 열정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I 중등과정에서 역사교육의 비중

프랑스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으로, 특히 철학과목 문제로 유명한 바칼로레아(Baccalauréat)가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프랑스 중등교육의 특징은 바로 역사 과목이 지닌 중요성에 있다. 프랑스에서 대학교 이전의 교육과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나뉜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초등학교(école élémentaire)는 5년, 중학교(collège)는 4년, 고등학교(lycée)는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총 12년의 초·중등교육 과정 중 역사를 배우는 기간은 초등학교 초기 3년을 제외한 9년 동안이다. 초·중·고 기간에 역사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매 학년마다 역사 수업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정 학년에만 역사 수업을 배우는 한국보다 역사 수업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역사 수업의 중요성은 중등학교 교과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중등과정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살펴보자. 프랑스 중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프랑스어, 수학, 제2외국어, 역사·지리, 시민도덕교육, 생물·지구과학, 물리·화학, 기술, 미술, 음악, 체육, 미술사, 미디어·정보라는 13개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와 비교

할 때 주목할 점은 '사회'라는 과목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지리 과목이 사회 과목을 대체 및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은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세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고등학교 자체가 일반고, 전문기술고, 직업고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는 다시 문과 계열(L), 경제사회 계열(ES), 자연과학 계열(S)로 구분된다. 이 모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역사·지리 과목은 자연과학 계열 3학년 과정을 제외한다면 전 계열, 전 학년에 걸쳐 공통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술고나 직업고에서도 역사는 공통필수인데 흥미로운 점은 역사 교과 내용도 이 두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에 대한 탐구'는 일반고와 다르게 기술고 역사교과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다. 일반고 교육과정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과목이 경제사회 계열을 위한 선택과목이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역사·지리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에서는 역사 및 지리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 역사교과 내용 구성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역사교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최근 2015년에 개정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과정과 2019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마지막 2개 학년인 4학년과 5학년에서 프랑스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진다. 4학년은 19세기 이전 시기로 로마시대 프랑스와 11~18세기, 프랑스 혁명이

라는 3가지 주제를, 5학년은 제3공화정과 산업화, 20세기 양차 세계대전과 유럽이라는 3가지 주제를 살펴본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프랑스사를 통한 정체성 확립, 국민 만들기라는 목표를 강하게 부각한다.

중학교에서는 4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역사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1학년(6ème)에서는 고대문명과 그리스-로마의 역사를, 2학년(5ème)에서는 중세사회와 근대로의 이행기(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 개척)를 배운다. 3학년(4ème)에서는 18~19세기의 역사를 주로 다루는데 노예무역과 계몽사상,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산업화와 제국주의,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민주 공화정 건설과정이 세부 주제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4학년(3ème)에서는 양차 세계대전과 이후의 유럽, 그리고 현대 프랑스의 역사를 다룬다. 이와 같은 중학교 역사 교과에서는 프랑스사를 서양사, 보다 정확하게는 유럽사의 맥락에 위치시키면서 유럽의 역사에서 프랑스의 역할, 유럽인으로서 프랑스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는 19~20세기의 역사, 즉 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고등학교 1학년(2nde)에서는 고대사부터 18세기까지의 역사를 '근대세계 형성의 주요 단계'라는 대주제 아래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네 주제는 고대와 중세 지중해 세계, 15~16세기 신항로 개척과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 프랑스와 영국의 근대국가 형성,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및 18세기 사회의 변동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2학년에서는 '국민, 제국, 국민화'라는 대주제 아래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이른바 장기 19세기의 역사를 다룬다. 무엇보다 프랑스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과정을 유럽사와의 연관성 하에 배운다. 마지막으로 3학년

(1le)에서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열강 간의 각축과 이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 현대 프랑스의 변화를 배운다. 19~20세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육은 현대세계를 역사적, 비판적 시각으로 이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역사 교과는 앞서 말했듯이 사회과 교과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들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초·중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랑스 역사교육은 프랑스인으로서, 또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 강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역사 비판적 관점 확립을 주요한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 문제점과 시사점

이상과 같은 프랑스 역사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교과내용 대부분이 자국사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지구화가 상당히 진척된 21세기에 프랑스 역사교육은 최근까지도 자국사 중심의 유럽사만을 고집한다. 그렇기에 동아시아는 물론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나 서아시아 지역도 교과 내용에서는 누락되었다. 이미 위에서 살펴본 중학교 교과과정은 2015년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역사교육 논쟁의 산물이었다. 이때 탈자국사적 교류사가 새로운 역사교과 내용으로 제시되었지만 보수적인 여론에 밀려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는 다시 축소되고 자국사 중심주의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2019년에 선보인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여전히 자국사 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교류사가 지닌 망라주의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떻게 역사교육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현장 노트



허한덕

체육교육전공

예비교사의 길을 걷는 대부분의 원우들은 학창시절 교생 선생님과과의 봄내음 나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교생 선생님의 어색한 수업을 듣고, 소풍을 가고, 체육대회를 즐기다가 정든 마음을 뒤로 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이별했던 추억을 하나쯤은 지니고 있을 것이다.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때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교생 실습을 다녀와야

지.'하며 마음이 들떴다. 하지만 나에게 이번 학기는 설렘보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통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 탓에 실습은커녕 학교 개학마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상황이 다소 소강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고 마침내 부분 등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기존 4주간의 직접실습에서 2주간의 간접실습으로 변경 시행되었다. 게다가 내가 맡은 2학년 학생들이 단 일주일만 등교를 하게 되어 혼란과 아쉬움 속에서 실습을 시작했다.

내가 실습한 중앙중학교는 서울에 두 곳밖에 없는 혁신미래학교로 선정되어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그곳에서 신남수 교장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당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약간의 혼란은 있었을지언정 온라인 수업에 비교적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었고, 수업의 질도 월등히 높았다.

사실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가르칠 수 없

扶危定傾(부위정경)

다고 생각했다. 단편적인 지식 전달은 가능하겠지만 대인관계능력과 같은 사회화 과정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지식 전달'과 '사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느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여 평소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질문할 수 있고, 미리 탑재된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예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낮선 분위기에서 교사와 교생은 수업 자료 개발과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내용 구상부터 영상 촬영 및 편집까지, 많은 고민을 거쳐 다층적인 작업을 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는 이러한 고민을 교사 혼자 가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수업 자료를 고안했다. 일반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학생들은 성실하게 실시간 수업에 참여해주었고, 과제 역시 즉각적인 제출이 가능하여 바로바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전의 수업에서는 잘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한 현장 티칭 능력이 중요했다. 그러나 미래 교육에서는 지식 전달의 개념인 '티칭'보다 학

생 스스로 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칭'이 교사의 자질로서 더 중요하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독창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코칭 수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扶危定傾(부위정경)은 '태조가 위기를 맞아 나라를 안정시켜 그 위엄과 권위가 왕을 두렵게 하였다'라는 글귀에서 나온 사자성어이다. 이는 위기에 닥쳤을 때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더 큰 미래를 그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작은 교사 밑에서 아이들은 큰 뜻을 품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서 있지만,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융합의 순간에 놓여있기도 하다. '좋은 교수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내가 배우지 않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다.

나의 노력이 아이들을 만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절반으로 줄어든 실습 기간에 아쉬움이 많지만, 2주간의 강렬한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기에 충분했다. 나는 교육이 가진 크나큰 변화의 힘을 믿기에 미래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려 한다.

학교현장 탐방

'토론중점과정'으로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온양한울고등학교



김시형
온양한울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온양한울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양한울고등학교 교사 김시형입니다. 한울고에서 학생들을 만난 지 올해로 14년째가 됩니다. 교육과정부를 맡아 학점제 선도학교와 교과 특성화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사회와 논술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양한울고등학교는 지역의 여성 교육을 위해 1972년에 설립된 삼화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전신으로 두고 있는 기독교 계열 사립학교입니다.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일반계열 중심의 학교로 변모하였고, 2009년 사교육 없는 학교를 거쳐, 현재는 학점제 선도학교와 교과 특성화학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양한울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양한울고등학교는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사랑'이라는 교훈 아래, '참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솔모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본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뜻을 담고 있는 '한울'이라는 교명처럼 학생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거의 모든 보통 교과에 대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현재, 2~3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수업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서'와 같은 수업에서부터 'We Can Fly' 프로그램,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행복수업 등 짧게 정리하기에는 힘든 다양하고 세세한 창의적 체험활동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양한울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론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론중점과정의 시초는 2014년 1학년 과학과 사회 과목을 연계하여 토론 수업을 시도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과학 선생님과 사회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해서 각 과목당 주 1시간씩을 할애하여 토론 활동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주당 두 시간씩 토론을 준비하고 실제 토론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많은 격정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호응,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힘입어 이와 같은 형태의 수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교의 1학년은 한 해 동안 최소 8번의 실전 토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은 반별로 대표를 뽑아 반 대항 토론 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7년 교과중점학교 사업 참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고, 1학년의 토론 경험을 2, 3학년으로 확장·심화하는 토론중점과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2학년은 물론 3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토론중점과정 수업을 개설·운영하게 된 올해는 진로와 기능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론 활동의 세부 요소 가운데 '스피치 기능'과 '질의 기능'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토론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상대와 적극적으로 나누는 활동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핵심역량' 개발에 두루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 모두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모두 들어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또한, 몇 년 전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친구들의 도움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친 일화도 잊지 못할 기억 중 하나입니다. 필담과 수화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친구들이 받아서 발언해 주던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토론중점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중점과정은 교사에게도 '살아 숨 쉬는 교실'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론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토론중점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인 듯합니다. 외부 회의에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도 물론이지만, 본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토론'이라고 하면 교과가 아닌, 수업 방식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 논술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곤 합니다. 논술 역시 수업 방식이자 평가 도구의 하나이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편제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토론 역시 수업 방식이자 평가 도구이지만 스스로 체계를 갖춘 교과목이 될 수 있고, 그 체계를 공유하는 교과들과 함께 하나의 과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본교의 교사들은 교과중점학교 도입 초기부터 '토론' 교과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쪼개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일 만나는 학생들이 최우선인 교사들의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진행 속도가 참으로 더딤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론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토론을 하고 싶다고 멀리 당진에서 일종의 유학을 온 학생도 있었고, 토론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학교를 선택했다는 학생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토론중점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확실히 성향이나 진로희망, 관심사 등에 따라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을 열성적으로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특성화과정으로서의 오히려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학년에 한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토론활동을 하게 되지만, 2, 3학년에 진급해서는 이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열성적인 학생들이 꽤 있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전국 토론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보통 학생들의 반응에 동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중점과정을 좋아하는 학생의 부모님은 오히려 학생 본인보다 몇 배 더 좋아하시고, 토론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의 부모님의 경우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긴 서술형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며 토론중점과정의 장점을 인식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토론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점차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범대 가건물에서 교직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범대 교과과에 교직이수 신청서를 받으러 갔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그때는 교사가 될 것이라고, 교사를 평생 직업으로 삼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자격증을 따는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사로 십여 년 넘게 일을 하면서 그 하나의 자격증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 것인지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교직의 매력 중 하나로 '늘 성장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직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속도에 함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자격증을 받고, 또 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좌충우돌 시행착오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격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부럽고 기대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아이들과 늘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선배 교사들을 이끌어주기를 현장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학생들은

토론중점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중점과정은

교사에게도

'살아 숨 쉬는 교실'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화 탐방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근대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한국미술 작품 가운데 대표작 54점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전시는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한국미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에서 마주했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의 기초부터 다시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되는 전시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미술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감상하러 다 함께 떠나볼까요?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전시기간 : 2020.05.06.(수)~
- 관람시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
※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온라인 미술관> 운영
- 관람문의 : 02-3701-9500

한국미술의 새로운 발견,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

‘미술’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보통은 서양미술의 형태를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190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미술을 다루고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미술의 큰 흐름과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부에서 일제 강점기의 미술을, 2부에서 해방 후와 한국전쟁기의 미술을, 3부에서 1960년대와 70년대의 미술을, 4부에서 1980년대 이후의 미술을 두루 감상함으로써 한국미술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다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3관(서울·과천·덕수궁)은 5월 30일(토)부터 휴관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온라인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집(<https://www.mmca.go.kr>)에 접속하여 충분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실제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약하며, 온라인으로나마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껴보도록 하자.

I 1부: 개항에서 해방까지



이 시기는 ‘유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도입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주자인 고희동은 한국의 첫 서양 화가로 국내에 처음으로 서양화를 도입하였다. ‘부채를 든 자화상’이라고도 불리는 ‘자화상’이라는 이 유화 작품은 작가가 화실에서 부채를 부치며 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의의 단추가 채워져 있지 않은데, 가슴을 풀어헤친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묘사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얼굴과 옷이 화사한 색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염두에 둔 채색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작가의 인상주의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김기창은 청각장애를 앓은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어린 시절 열병으로 인해 청각을 상실했다. 그의 아버지는 김기창을 목수로 키우고자 하였으나 어머니는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가 미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김기창의 작품 가운데 ‘정청’이라는 작품은 그의 첫사랑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창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외할머니 댁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당시 옆방에 살고 있던 기생의 딸 ‘소제’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할머니가 ‘소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자 김기창과 소제는 남몰래 연정을 나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기창은 외할머니의 눈을 피해 그의 막냇동생과 소제와 함께 외출을 나선다. 그리고 응접실이 잘 꾸며진 한 의사집에서 그녀와 자신의 동생을 스케치한 뒤 이를 비단에 옮겨 ‘정청’이라는 작품을 완성시킨다. 즉, ‘정청’이라는 작품은 그들의 비공개 연애가 낳은 작품인 것이다. 남몰래 연애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애절한 사랑이 그림을 통해 느껴지는 듯하다.

오지호는 한국적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는 고향인 개성에서 미술교사를 하며 살던 시절, 그 당시 자신이 기거하던 집을 배경으로 ‘남향집’이라는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전면에 세워진 두 그루의 나무와 그 나무로 인한 그림자가 매우 인상적이다. 한편, 문에서 나오려고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물은 작가의 딸인데, 붉은 색 옷을 입고 있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남향집의 풍경과 그 느낌이 잘 드러나고 있다.



II 2부: 정체성의 모색



작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특히, 할아버지의 어깨 라인이 둥글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인데 이는 마치 우리나라 전통의 초가를 연상시킨다.

이중섭도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명이다. 그는 소, 닭, 아이들 등을 주요 소재로 삼는 한편, 고분 벽화나 민화와 같은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것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다. ‘부부’는 화면 위쪽에 있는 푸른 날개의 수탉과 화면 아래쪽에 있는 붉은 날개의 암탉이 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장면이 묘사된 작품이다. 두 마리의 닭은 서로 닿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수직적으로 묘사된 이들의 모습은 배경에 가로로 그려진 선들과 대조되어 더욱더 힘겨워 보인다. 작가는

한국전쟁 직후, 작가들은 한국성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작가들은 자신만의 특성, 개성을 추구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박수근이다. 박수근은 ‘할아버지와 손’이라는 작품에서 화강석의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한국적인 특성을 표출해 낸다. 그는 화강석의 텅텅한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물감을 신문에 짜서 기름을 빼내곤 하였다.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총 6명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진 할아버지와 손



중이 위에 유채 물감을 바르고 물감이 마르기 전에 수평으로 굽게 물감을 굽어낸 뒤, 그 위에 거친 붓으로 덧칠하여 이 작품을 제작했다. 거친 붓놀림과 강력한 색감은 이중섭의 표현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III 3부: 세계와 함께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공간에는 앵포르멜 위주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앵포르멜이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서정적 추상 회화의 한 경향이다. 한국의 앵포르멜 작품으로는 오종욱의 ‘미망인’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 없다. 오종욱은 한국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작가이다. 그는 부상당했던 자신을 도와준 전우가 얼마 후 본인의 눈앞에서 차차히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경험하며 꽤나 큰 트라우마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트라우마는 ‘미망인’과 같은 작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발과 손을 결합하여 표현한 이 작품을 살펴보자. 모든 신체 부위는 생략한 채 앙상한 발과 손만으로 미망인의 모습을 축약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 이 작품은 미망인의 절규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 공간에는 실험미술로 분류되는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광인식의 ‘작품’이 있다. 광인식은 형을 따라 일본에 가게 되면서 ‘유리’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는 물질 그 자체가 주는 자연스러운 선을 갖고자 노력했고, 유리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땅을 파서 유리를 묻고 쇠파지로 그것을 쳐서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작가는 마음에 드는 선이 나올 때까지 수 백 장의 유리를 깨뜨렸다고 한다. 인공적인 제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질 그 자체의 미(美)를 구현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이후 많은 작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IV 4부: 다원화와 글로벌리즘

4부에는 1980년대 이후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당대 한국사회와 그 현실이 반영된 작품들이 특히 눈에 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황재현의 ‘황지330’이 있다. 이 작품은 황재현 작가가 강원도 황지에 있는 탄광촌에서 3년 간 탄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작가는 탄가루가 떨어지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수많은 탄부들의 모습을 보며 삶의 고단함을 몸소 체험한다. 그리고 탄광촌에서의 생활 도중, 탄광이 무너져 세상을 떠난 ‘김봉춘’이라는 탄부의 유품을 작품화하여 ‘황지330’을 탄생시킨다. 불의의 사고로 떠난 탄부가 남긴 허름한 옷은 그 당시 삶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만든다. ‘황지330’과 같은 리얼리즘 계통의 작품이 이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작가들이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재환의 ‘알파별 외계인이 내 그림 뒤에 남긴 방명록’이라는 작품은 비교적 최근의 작품으로 작가의 개성과 유머가 돋보인다.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본인의 작품을 보고 작품의 뒷면에 메시지를 남긴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마치 암호를 연상시키는 수식으로 가득하다. 엉뚱한 듯하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드는 작품이 아닐까 싶다.



로 유리 바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은 힘이 없을 지라도 이들이 모두 모여 하나를 이루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개인주의로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있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작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 시대에 따라 다채롭게 변모해 나가는 한국미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 미술에 대한 관심을 고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 사진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제공